

‘영원’한 것과 ‘임시’로 지나가는 것

찬양해요

찬송가 486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고린도후서 4:16-18

-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 이해하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지만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도리어 바울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겉 사람과 속 사람은 육적인 몸과 영혼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임시’와 ‘영원’을 대조하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겉 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육체가 점점 쇠약해 가는 것을 뜻하기보다 ‘임시’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쇠락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반하여 영원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신의 몸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6절)?

▶ 우리의 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2. 바울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17절)?

▶ 지극히 크고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3.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18절).

4. 이 땅의 것은 '임시'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로 나누어 보세요.

5. 요즘 우리 가족에게 낙심 되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좇으며 살고 있는지요.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